

# 커쇼 무너진 다저스 ... “류현진, 믿을 건 너 뿐”

월드시리즈 1차전 보스턴에 4-8 패  
1선발 커쇼, 4이닝 5실점 패전 멩에  
류현진 오늘 2차전 선발 ‘꿈의 무대’  
보스턴 프라이어스와 좌완 맞대결

월드시리즈 2차전 다저스-레드삭스  
선발 투수 비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류현진 (31)		데이비드 프라이어스	
190cm / 113kg	<b>체격</b>	198.1cm / 95.2kg	
40승 20패 (평균자책점 3.20)	<b>통산 성적</b>	143승 75패 (3.25)	
7승 3패 (1.97)	<b>시즌 성적</b>	16승 7패 (3.58)	
2승 1패 (3.56)	<b>포스트시즌</b>	3승 9패 (5.04)	
한국인 최초 월드시리즈 선발 출전	<b>특이사항</b>	2012년 사이영상 수상 올스타 5차례 선정	
올 시즌 정규리그 홈-원정 성적 홈 5승 2패 (1.15) 원정 2승 1패 (3.58)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선발 투수 류현진 (31)은 25일 오후 9시 9분(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리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WS 2차전에 선발 등판해 데이비드 프라이어스와 좌완 투수 어깨 대결을 벌인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통산 9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뒀다.  
아메리칸리그 우승팀 보스턴은 2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1차전에서 내셔널리그 챔피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8-4로 꺾었다.  
클레이턴 커쇼(다저스)와 크리스 세일(보스턴) 양대리구를 대표하는 좌완 애시스가 나란히 5이닝을 못 채우고 강판한 가운데 경기는 보스턴이 달아나면 다저스가 쫓아가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4이닝 동안 안타 7개와 볼넷 3개를 허용한 커쇼의 자책점은 5점으로 늘었다. 커쇼는 패전의 멩에를 썼다.

다저스는 3-5로 뒤진 7회초 안타 2개와 볼넷으로 1사 만루 동점 찬스를 잡았지만, 마차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격하는데 그쳤다.  
보스턴은 5-4로 앞선 7회말 대포로 승패를 결정지었다.  
선두 베네티디의 좌익수 쪽 인장 2루타로 달아날 준비에 나선 보스턴은 마르티네스의 고의 볼넷으로 2사 1, 2루로 이어갔다.  
다저스는 7회말 홀리오 우리아스에 이어 페드로 바에스를 올린 뒤 좌타자 데비스 타석 때 좌완 구원 알렉스 우드로 맞볼을 냈다.  
그러자 알렉스 코라 보스턴 감독은 우타자 에두아르도 누네스로 응수했다. 누네스는 우드의 몸쪽 낮게 떨어지는 너클 커브를 견여 올려 좌측 그라운드를 넘어가는 백라켓을 석 점 홈런

으로 만세를 불렀다.  
승기를 잡은 보스턴은 선발 투수 내이션 이발디를 8회 구원으로 내보내 1이닝을 막은 뒤 마무리 크레이그 김브럴을 투입해 9회를 매조졌다.  
2번 타자 베네티디가 5타수 4안타를 치고 3득점을 올려 보스턴의 공격을 이끌었다. 마르티네스는 3타수 2안타에 2타점으로 제 몫을 했다.  
다저스에선 홀로 3타점을 올린 마차도만 빛났다.  
AP 통신은 24일 ‘류현진이 원정 마구를 내뱉기를 기대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2차전 등판을 앞둔 류현진을 조명했다.  
류현진은 25일 오전 9시 9분(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리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WS 2차

전에 선발 등판해 데이비드 프라이어스와 좌완 투수 어깨 대결을 벌인다.  
류현진은 “백리기에 온 뒤 가장 많이 던진 야구장이어서 홈구장 다저스타디움을 편안하게 느낀다”며 “거기에서 거둔 성공이 더욱 자신감을 키웠다”고 홈에서 유독 강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현진은 월드시리즈에선 밀워키와 상대할 때보다 더 나은 제구 능력을 보이는 게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현진은 “WS 2차전에서 내가 던질 수 있는 모든 공을 던지겠다”고 강조하고 “변화구 제구가 잘 이뤄져 볼 카운트 싸움에서 앞서간다면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 LG로 간 ‘바람의 아들’

이종범, 4년만에 코치 복귀



‘바람의 아들’ 이종범(48) 코치가 4년 만에 KBO리그 현장에서 복귀한다.  
프로야구 LG 트윈스는 24일 “최일언, 이종범, 김호, 김재걸 코치를 영입했다. 보직은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G 팬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이종범 코치다.  
이종범 코치는 4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2012년 10월~2014년 10월 한화 이글스에서 코치를 지낸 이 코치는 2015년부터 올 시즌까지 마이크를 잡고 해설위원으로 활약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야구대표팀 코치도 맡았다. 야구팬들 사이에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종범 코치는 현역 시절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1993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종범 코치는 2011년 시즌 종료 뒤 은퇴할 때까지 16시즌(1998년~2001년 6월은 일본프로야구 진출) 동안 타율 0.297, 194홈런, 730타점, 510도루를 올렸다.

신인이던 1993년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고, 이듬해(1994년)에는 정규시즌 MVP를 거머쥐었다. 공·수·주를 모두 갖춘 ‘천재형 선수’로 통했다.

2017년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한 이종후(20)는 정규시즌 신인왕을 차지했고, 올해는 국가대표 투타자로 성장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야구대표팀의 코치와 선수로 금메달을 함께 목에 걸었다. 이종범 코치와 이종후가 펼치는 ‘부자 대결’이 2019년 KBO리그의 화두가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 KIA, 임창용과 재계약 포기

전력 외 선수 분류 ... 방출 통보

KIA 타이거즈가 ‘최고참’ 임창용과 결별을 선택했다.  
KIA는 24일 임창용을 내년 시즌 전력 외 선수로 분류하고, 24일 재계약 포기를 시사했다.  
지난 2016년 친정으로 복귀했던 임창용은 3시즌을 보낸 뒤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됐다.  
올 시즌 37경기에 나온 임창용은 5.42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4패 4세이브 4홀드를 기록했다.  
5월 13일 삼성 원정에서 8-7, 1점의 리드를 지킨 임창용은 만 41세 11개월 9일이라는 최고령 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kt전을 시작으로 선발로 변신하면서 다

시 이번 주목을 받은 그는 세 번의 선발 등판 끝에 롯데전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이 승리는 삼성 시절이던 지난 2007년 8월 21일 이후 3998일만의 선발승이자 타이거즈에서의 첫 선발승이었다.  
이와 함께 42세 1개월 28일의 임창용은 역대 두 번째 최고령 승리투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9월 18일 삼성전에서는 시즌 두 번째 선발승과 함께 역대 최 초로 한-미-일 통산 10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시즌 중반 내부 불화설에 휩싸이며 선수 생활 위기를 맞기도 했던 그는 결국 새로운 팀을 찾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원석 찾기·내야 백업 육성...KIA, 속제 산더미

29일부터 日 오키나와서 마무리 캠프

강상수 코치 영입...전상현 등 예비역 합류

KIA타이거즈가 2019시즌을 위한 워밍업에 들어간다. KIA가 오는 29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마무리 캠프를 실시한다.  
내달 27일까지 30일간 계속되는 이번 캠프에는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4명과 박준표, 이민우, 박정수 등 투수 14명, 최원준, 류승현, 박준태 등 야수 14명, 한승택, 신범수 등 포수 4명 등 총 46명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캠프를 차리고 실전 대비 기술 및 전술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 등 체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시즌 ‘원석’을 가리는 이번 캠프에는 마운드 육성과 내야 백업 찾기라는 속제가 걸려있다.  
올 시즌 KIA는 ‘V11’의 주역인 양현종, 헥터, 팻던, 임기영의 부상과 부진 속 어렵게 선발 로테이션을 꾸려왔다. 또 필승조 임창용의 선발 이동과 김세현·윤석민이 부진이 겹치면서 불펜 운영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KIA는 선수단 개편 작업에 나서면서 육성을 담당했던 투수 코치들과도 작별을 고하면서 새판 짜기에 나섰다.  
계속된 마운드 고민을 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수비 강화다. 주축 야수진이 공격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쇠화까지 겹치면서 수비는 올 시즌 KIA의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특히 수비과 부상으로 고전했던 김선빈과 이범호의 백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캠프를 통해 새출발에 나서는 ‘예비역’들도 있다.  
전역 후 1군에서 잠시 얼굴을 비췄던 전상현과 박준표와 함께 좌완 이준영, 해병대에서 전역한 포수 박정우, KBO리그 1호 독도경비대 윤안준 등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은 광주와 함평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한편 KIA는 강상수 코치를 영입했다. 강 코치는 25일 선수단에 합류한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참가 선수 명단  
▲감독 : 김기태 ▲코칭스태프(13명) : 김민호 김중국 김민우 김상훈 강상수 이대진 서재우 코우조 홍세원 배요한 정상욱 고영득 조승범 ▲투수(14명) : 고영창 김유신 문경찬 박경태 박정수 박준표 백미카엘 이민우 이준영 차명진 하준영 홍건희 황인준 전상현 ▲포수(4명) : 박정우 신범수 한승택 한준수 ▲내야수(8명) : 류승현 오정환 이장진 최원준 최정민 황대인 황윤호 윤완주 ▲외야수(6명) : 이인행 박준태 유민상 이은총 전은석 신재왕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